

LS산전(주)

에너지 다소비 산업 중심으로 ESS 확대 '가속 페달'

- 5월 한 달간 LS-Nikko동제련·삼양그룹 ESS 프로젝트 잇단 수주
- 향후 15년간 매년 13~15억 원 에너지 절감 효과로 수익화 가능



LS산전 관계자가 ESS(에너지저장장치)용 PCS(전력변환장치)를 점검하고 있다

LS산전이 5월 한 달간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ESS(에너지저장장치 ; Energy Storage System) 프로젝트 2건을 잇달아 수주하며 국내 ESS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LS산전은 최근 삼양그룹 계열사 5개 공장을 대상으로 150억 원 규모의 ESS 구축 사업을 수주했

다고 밝혔다. 총 용량은 PCS 5MW 배터리 30MWh 규모로, 오는 7월 31일 완공해 8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삼양그룹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13.4억 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둬 6년 이내에 투자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LS산전은 이달 초 LS그룹 계열사인 LS-Nikko동제련과도 150억 원 규모의 ESS 구축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이 사업은 LS-Nikko동제련 온산사업장에 PCS 6MW, 배터리 36MWh 규모의 ESS 솔루션을 적용하는 것으로, 사업장 변전실 인근에 PCS와 배터리, 수배전반 등으로 구성된 ESS 스테이션을 구축, 오는 8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해 향후 15년 이상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매년 평균 15.5억 원 수준의 에너지를 절감하며, 투자비 회수 기간은 6년 이내다.

LS산전 ESS

이번에 ESS를 구축하게 되는 각 공장들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으로 꼽히는 만큼 전량 자체 에너지 공급 용도로, 전기요금이 싼 심야 전기를 저장한 뒤 요금이 비싼 피크 시간 대에 집중적으로 전기를 활용해 절감효과를 극대화하게 된다.

LS산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야 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ESS 사업을 확대,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단기간에 투자비를 회수하고 향후 운용을 통해 수익화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 수익성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전환 시대에도 기여하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LS산전 헬리컬(Helical) 기어 감속기 출시

LS산전은 헬리컬(Helical) 기어 감속기를 새롭게 출시한다.

헬리컬 기어 감속기는 기존 Spur 기어 대비 Low backlash, Low noise level, High output torque 면에서 월등히 향상된 Performance를 제공한다.

Straight 타입에서는 3:1에서 100:1, Angle 타입에서는 3:1에서 200:1까지의 다양한 감속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보모터에 간편한 취부를 제공하고 있다.

100% 국내 기술력 제조에 의한 시장 최저가, 최단 납기 실현을 바탕으로 포장기계, 물류기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LS산전의 프리미엄 기술이 적용된 헬리컬 기어



LS산전 ESS

감속기를 통하여 공장 자동화의 혁신을 이루기 바란다.